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박상돈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스포츠의 정의 (안 제2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사업 (안 제5조)

○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6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기반 조성과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e스포츠 혹은 이스포츠라고 불리는 경기는 컴퓨터 혹은 콘솔로 이루어지는 비디오게임을 말하며 e스포츠의 종주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매우 높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음.
-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6개의 금메달이 e스포츠에 배정되면서 게임산업업계는 물론이며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20대 초중반 국내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국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채택)
- 우리나라 지자체 동향을 살펴보면
 - 경기도는 광명시가 구축 중인 미디어 문화콘텐츠 단지에 올해 경기게임문화센터와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할 예정.
 - 광주광역시도 이스포츠(e-Sports)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이스포츠 산업 교육원을 조성·운영할 계획 발표 (3.14)한 바 있음.
 - 이스포츠 산업 교육원 조성·운영사업은 이스포츠 산업 분야 직업 창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 확산을 견인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난 2020년 12월 개관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 활성화와 게임·이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이스포츠는 미래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부분,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최대한 키워나가야 하며, 특히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이스포츠가 채택된 만큼 향후 올림픽 종목 채택도 예상되며 이스포츠를 즐기는 인구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며 관련 산업도 발전할 전망이 우세함.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도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끝.